

## 충남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

한 상 욱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 hansw@cni.re.kr

본 연구는 전통적인 해수욕장, 낚시 중심에서 충남에 특화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야할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 CONTENTS

1. 배경 및 목적
2. 해양레저산업 개념 및 범위
3. 충남 해양레저산업 현주소
4. 국내외 여건 전망
5. 충남 대응방안

### 요약

- 충남의 해양산업은 전통적인 해수욕장, 낚시관련 기능만이 특화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장비생산, 관광서비스 등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시 매우 미흡한 실정
- 미래 해양레저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각 지자체는 해양레저관광 및 그 인프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산업은 장비생산 등 제조업 기반은 부산, 경남, 전남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고, 관광서비스 분야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코자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나, 충남은 요트, 마리나, 여객선 등 국가 추진 사업을 뒤따라가고 있는 상태이며, 산업화를 위한 제반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
- 급변하는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서 충남은 충남의 강점을 활용하여 차별화하고, 콘텐츠를 강화하며, 공간적·산업적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의 해양레저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을 구성하는 해양관광, 해양문화, 해양스포츠의 시설, 프로그램, 전후방 관광산업군, 전후방 제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01 배경 및 목적

- 국민소득증가로 다양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추세이고,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은 경쟁이 치열해 질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 필요
- 충남은 해수욕장, 낚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해양레저기능에 머물고 있고, 최근 만리포를 중심으로 서핑중심의 특화발전할려고 시도중이나, 해양레저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높음
- 다양한 잠재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충남 해양레저는 매우 초보단계이고, 콘텐츠 보강 및 전후방산업을 고려한 지역발전 모델 설정 필요
  - 해양레저관련 산업이 그 발생자체가 외국(남미, 유럽 등)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시점으로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전략적 노력 필요
- 충남에 특화된 해양레저산업 육성하기 위한 전략 및 대응방안관련 과제 제시
  - 지역 주도형 해양레저스포츠 특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 창출 및 관광해양 거점도시 구축 필요

## 1. 해양관광의 정의 및 분류

해역, 연안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

- 관광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해양관광은 해역과 연안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관광목적의 활동으로, 직·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이와 연관된 활동을 말함(부산광역시, 2018)<sup>1)</sup>
  - 해양수산부는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를 해양관광이라고 정의함<sup>2)</sup>
  - 그러나 해양수산부 정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양(해역)만을 다룸으로서 포괄적이지 못하며, 일반적으로는 해양관광은 해양과 도서·어촌·해변을 포함하는 공간 속의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목적의 활동을 말함(부산광역시, 2018)
  - 오늘날 해양관광은 연안공간의 자연과 인문자원을 활용한 모든 관광활동을 포괄하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연안침식 대응,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등의 환경보호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편, 연안도시·항만·어촌 등의 재개발 수단으로도 인 활동으로 정의함(부산광역시, 2018)

1) 부산광역시(2018), 부산 해양관광진흥 실행계획. 이하 동일

2) 해양수산발전기본법(2001)

## 해양관광은 크게 활동유형에 따라 해변, 해상, 해중·해저로 크게 나뉨

- 해양친수문화가 성숙된 유럽이나 미국의 해양관광은 연안에서의 활동영역에 따라
  - ‘해변관광(Coastal Tourism)’ ‘바다관광(Marine Tourism)’ ‘선박관광(Nautical Tourism)’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부산광역시,2018)
  - 연안공간은 연안육지, 연안습지, 평수구역, 연해, 근해로 나누어지며 각 영역별로 자연환경과 이용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해양관광 활동도 상이하게 분류됨(부산광역시, 2018)

## 해양관광은 공간, 활동유형, 활용자원에 따라 그 분류가 다양

- 유럽은 해변관광, 크루즈관광, 요트 및 마리나를 해양관광산업으로 분류
  - 해양관광산업의 범위는 ‘해변관광’, ‘크루즈관광’, ‘요트 및 마리나’의 3개 부문으로 분류함(ECORY,2013)<sup>3)</sup>
  - 해양관광의 범주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변의 레저활동(수영, 서핑 등), 해상 기반 보트, 요트, 크루즈관광 등의 수상레저활동, 육상의 지원서비스(임대, 보트건조 및 장비 제작·공급 서비스 등)로 분류(부산광역시, 2018)
- 일본은 크루즈, 요트·레저보트 활동을 해양관광의 핵심으로 인식
  - 일본은 해양관광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해양 관련 관광자원, 해상 교통수단을 이용한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만, 요트·레저보트, 크루즈를 해양관광으로 인식
- 해양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해양자원을 직접 이용하는 ‘해양의존형’ 관광활동과 간접 이용하는 ‘해양연관형’ 관광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해양의존형에는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요트 등의 스포츠형, 해수욕 및 바다낚시 등의 휴양형, 경관을 감상하는 유람형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해양연관형에는 해양문화관광, 도서관광, 생태관광 등이 포함됨(김성귀,2007)<sup>4)</sup>
  - 공간별로는 해변, 해중·해저, 해상의 3가지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고, 활동유형에 따라 스포츠형, 휴식형, 체험·관람형으로 분류

3) ECORYS(2013), Study in support of policy measures for maritime and coastal tourism at EU level

4) 김성귀(2007), 해양관광론, 현학사

해양관광 분류(부산광역시, 2018, 재정리)

구분	유형	세분류	
해변	체험활동형	마리나	
		해양테마파크	
		해수욕장	
		비치발리볼	
		어촌체험관광, 수산물채취 체험관광	
		해안길 걷기	
		해상 연날리기	
		모래스키	
		머드체험관광	
		해양생태탐방	
		해양산업관광(항만, 조선시설 등)	
	휴식관광형	등대관광	
		해양낚시	
		해양박물관, 해양성 축제	
		해양과학관, 수산먹거리 체험관광	
		수족관, 돌고래쇼장	
		해변캠핑, 도서관	
모래찜질, 해변야외온천, 상징물관광			
해상	체험 및 활동형	해저관광잠수정, 해중전망탑, 해중호텔 해중피쉬파크	
		유람선(크루즈), 도선, 수륙양용버스, 해상버스, 해상택시, 관광위그선	
		해양레저선박(요트, 그라스보트, 모터보트 등) 및 해양레저·스포츠장비(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웨이크 보드 등)	
		해양극기훈련(겨울바다수영대회 등)	
		해상교량관광(해상교량전망대, 교량 등반 등)	
		해상항공레저, 해상번지점프, 해상 골프연습장	
	휴식관광형	해상케이블카, 해상호텔, 수상관광펜션, 수상레스토랑, 수상 카페, 해상불꽃놀이, 선박축제 등	
	해중·해저	체험활동형	씨워킹
		휴식관광형	스킨다이빙(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자료 : 부산광역시(2018), 부산 해양관광진흥 실행계획

## 2. 해양산업의 정의 및 범위

- 세계해양산업은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활동을 말함(해양수산부, 2017), 이하 동일<sup>5)</sup>
  - 해운 조선 어업 수산 가공 해양관광 등 전통적 해양산업과 해양채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기술은 수반한 신해양산업으로 구분(OECD)
  - 다양한 기술 발전과 혁신 등으로 전통적 해양산업과 신해양산업은 구분하기 어렵거나 중복하여 발전 중
- 우리나라에서는 해운 항만 수산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 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 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

해양산업 구분(OECD,2016)

전통적 해양산업	신해양산업
어업 수산가공 해운 항만 신조선 및 수리조선 원유채굴 근해 해양제조 및 건설 해양관광 해운서비스 해양 R&D 및 교육 준설 등	양식 심해 원유채굴 해상풍력 해양 신재생에너지인 해저채광 해양바이오 첨단해양제품 및 서비스 기타

자료 : OECD(2016), The Ocean Economy in 2030

## 3. 해양레저산업 정의 및 범위

- 해양레저산업은 해양기반의 레저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제조산업적 측면에서의 레저선박 건조, 활동을 지원하는 마리나 시설, 기타 연관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포괄적으로 해당됨
- 해양관광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크루즈산업, 마리나산업, 수상·수중레저산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해양관광산업은 자연환경에 따라서 산업 발달의 유불리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해양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해안, 해양으로의 접근성 제약이 수반하며, 해면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
- 해양관광산업은 자연적 영향을 많이 받기에 해양 기온, 파도, 바람, 안개, 운무 등에 민감한 사업이고, 전통적인 관광산업이라 할수 있는 해수욕, 해안경관 감상 등이 있으며,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 레저·스포츠, 마리나, 크루즈 산업을 포괄함

5)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

- 이를 정리하면 해양관광레저사업은 해양레저기반시설, 해양레저 장비생산, 해양레저 관광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수중형과 수변활용형의 구분가능

해양레저산업 구성 요소(새만금개발청, 2016)

구분		주요내용		비고	
구성 요소별	기반시설		마리나, 방파제, 항만, 어항, 피셔리나, 해양레저산업단지, 콤플렉스, 리조트, 실버타운 등		
	장비생산		보트·요트생산, 각종 의장품·전자장비, 자동화 설비 구축, 설계·디자인, 생산기법 등		
	관광서비스		해양관광·이벤트, 운용·AS·교육(면허시험장), 보트쇼·레이싱, 렌탈·차터링·팩토링·금융 등		
활동유 형별	수중형	유람선	유람선형	정기 및 장기 유람선 관광목적 유람선(크루즈), 전세계 유람선	
			수륙양용형	수륙양용버스, 공기 부양정(호버크래프트)	
		동력수상 스포츠	동력기구형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리 요트 등	
			동력기구연 결형	패러 세일링, 플라잉보드, 웨이크보드 등	
		무동력스 포츠	소형선박형	카약, 카누, 딩기요트, 노보트 등	
	수변 활용형	수상스포츠 전문단지		마리나 단지형태의 레저스포츠 단지	
		물놀이 시설		해수욕장, 인공해수욕장	
		낚시 레저		낚시공원	
		해변탐방로, 해안도로		데크, 폰툰다리 등의 탐방로	
		교량, 전망시설		전망대, 관광등대, 교량, 스카이 워크	
		리조트		숙박 해양레저, 프로그램 결합 단지	

자료 : 새만금개발청(2016), 새만금 해양레저 선도사업 추진방안. 재구성

## 1. 해양관광자원 및 수용 태세<sup>6)</sup>

### 전통적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자원 보유

- 태안해안국립공원과 12개의 지정관광지가 있으며, 지정관광지는 해수욕장, 가족휴양중심 관광지가 대부분
  - 태안해안 국립공원은 1개소, 해수욕장은 51개소가 있고, 지정관광지는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지정관광지는 해수욕장 중심, 가족휴양중심 관광지가 대부분이며, 안면도관광지는 국제적 관광휴양지로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은 답보 상태
- 해수욕장을 중심의 계절성, 관광객 집중도 편중성이 강하고,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업이 미발달
  - 해수욕장 연간 이용객수<sup>7)</sup>는 14백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대천해수욕장 이용객수가 6백만 명으로 지역적 집중도 및 편차가 큼
  - 일반적인 숙박업의 숙박객수 비율이 50%를 밑돌아 규모가 작은 충남의 실정에 비춰볼 때 단기 방문지로서의 매력이 미흡하다로 할 수 있음

6)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요약 정리

7) 해수욕장 이용객수는 계획이 가능한 51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참조

## 2. 해양레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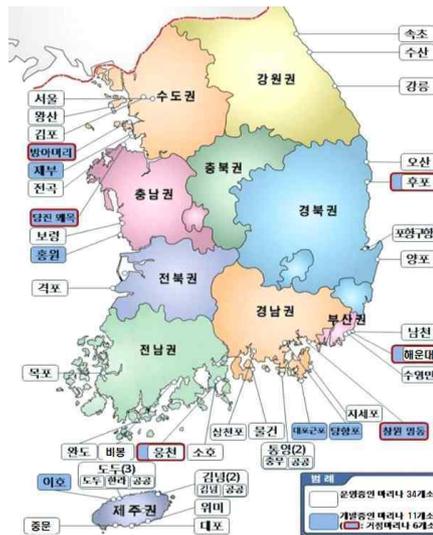
수도권 근접한 잠재성은 보유하였으며, 낚시를 제외한 관련 분야의 활성화는 미흡

- 수도권 근접성을 활용한 해양마리너 시설을 추진 중
  - 아산시, 당진시 등 수도권에 근접한 해양라미나, 레저스포츠 공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 경주중
  - 보령시, 태안군은 힐링, 생태관광을 육성하여 장기 체류형 관광지로 개선 중
-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로는 지리적 잇점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중
  - 서산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해 고급 관광산업을 유치코자 노력 중
  - 중국 등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동채널 다양화를 위해 서산공항 조성 노력 중
  - 한편,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쇼핑관광객 등을 흡수하기 위한 규모성을 갖춘 항구도시가 부재하여 약점으로 작용

### 1) 마리나

- 우리나라는 34개소, 2,355척이며, 개발중인 마리나는 11개소
  - 중앙정부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거점형 마리나항만<sup>8)</sup>을 6개소 지정
  - 충남은 당진 왜목이 거점 마리나 항만에 지정됨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2014)



8) 거점형 마리나항만은 해양관광의 중심지, 마리나 관련 산업클러스터, CIQ처리기능 등을 조성하는 300척 규모의 마리나 항만을 말함

## 2) 크루즈

- 국내외적으로 크루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
  - 세계적으로 크루즈선은 365개선(2017), 크루즈 관광객수는 25.8백만명(2017)이며, 지속적인 상승 중
  - 크루즈 관광시장은 카리브, 바하마, 지중해 등의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61.9%)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은 15.7%로 지속 상승 중<sup>9)</sup>
  - 우리나라는 입항지가 12개 있으며, 주요 입항지는 부산, 인천, 속초, 여수, 제주가 있음
-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은 지속적 감소추세이며, 주요 입국객이었던 중국인이 대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급감함
  - 중국인 입국객은 사드배치 이후로 1,645천명(2016)에서 232천명(2017)으로 급감
- 충남은 대산항에 중국 크루즈 유치에 추진 중

우리나라 주요 크루즈 기항지 현황



9) 한국 크루즈관광 통합정보(<http://cruise.visitkorea.or.kr>)

### 3) 낚시

- 국내 낚시산업 시장규모는 지속적 성장세
  - 국내 낚시산업 시장규모는 2,241억원으로 추정(2016)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0%이상의 성장세
- 충남은 경남 다음으로 낚시어선 매출액이 높으며, 낚시어선은 성장정체를 보이고 있음
  - 전국의 낚시 열풍으로 인하여 시장규모도 지속상승중이며, 이중 경남 64,774백만원, 충남 52,581백만원, 전남 33,842백만원으로 추정함
  - 낚시어선은 4.487척으로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정체 추세이고, 낚시어선 이용객은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시도별 낚시어선 매출액 추정(해양수산부, 2017)



### 3. 해양관광산업 분야

충남의 해양관광산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

- 2017년 국내 해양관련 산업체는 총 10,677개소로 그 중 해양관광업은 235개소로 전체 해양관광 산업체 중에 2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바다낚시는 보령, 태안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전국 17%를 차지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바다낚시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통영이며, 충남은 2,3위를 태안, 보령이 차지하여 규모성을 보유

마리나 관련 산업은 전국 대비 매우 열악

- 전국 마리나 관련 업체는 140여개이며, 충남은 3개소가 입지
  - 충남의 3개소 중 당진, 태안에 마리나 시설 공급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수상부유식 구조물 관련 산업은 천안에 입지
- 마리나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전무
  - 산업은 전선박시설 건조업, 수상오락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소매업, 운송장비 임대업, 식품종합 중개업, 수송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기계장비 중개업 등

레저선박 제조·유통산업 및 유통업은 매우 열악

- 충남의 레저선박제조업체는 2개소이며, 유통업은 1개소
  - 선박제조업은 콤비보트, 소형선박 제조수리업은 천안에 입지하고, 어선, 목선, 모터보트제조업은 서천에 입지함
  - 유통업은 천안에 입지
- 레저선박과 관련한 주요 전문사업은 전무
  - 해양레저 전문업, 당기요트, 조선기자재 제조, 해양레저장비 제조, 보트 제작, 요트, 선박 제조 및 매매, 레저스포츠 선박 제조업 등
- 요트제조 전문업체는 없음

**공공영역에서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 공공기관은 거의 없음**

-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기술 분야의 공공기관 역할은 장기적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 해양산업 분야의 민간 기업체 육성과 관련하여 부산을 거점으로 중소조선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입지하고, 산업화를 위한 조선해양센터가 경남에 입지하고 있음

**조선해양산업 분야 및 주요 공공기관(새만금개발청,2014)**

구분	주요 분야	주요기관
부산	중소형선박,기관추진체,의장 등 조선기자재	중소조선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원
경남	대형선박 및 중소형 선박 조선기자재,해양플랜트,크루즈선	조선해양센터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원
전남	대형선박 중소형 선박,해양레저장비	중소조선연구원 본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원
경기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및 해양레저 콘텐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 이전)

자료 : 새만금개발청(2014), 새만금 조선해양 및 해양레저산업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재정리

## 4. 현황 요약

### 충남이 강점을 갖는 자원은 해수욕장, 낚시업

- 전국에 공통적으로 자연자원을 다양하고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은 해수욕장과 낚시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전체 자원 중에서는 해수욕장 358개 중에 충남은 47개소임(강원103, 전남 65개소)

### 충남은 해양레저 자원의 밀집도가 낮으며, 서해안 전역에 산포하는 형태이고, 자원간 연계성이 낮음

- 충남뿐만 아니라 서해권 전체가 인구밀집도에 비해 밀집도가 낮아서 관광자원개발의 규모화 및 거점화가 미흡함
- 반면, 전남, 경남은 자원이 문화자원 측면에서 밀집되어 타 시·도의 해양문화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추진
  - 축제, 체험·전통 마을 등 문화자원의 전남·경남에 대부분 분포하고, 갯벌·바다낚시·도 서자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이 발달

### 충남은 낚시터, 수상레저, 유람선 등 전부분에서 타시도에 비해 매우 빈약

- 낚시터·유어장의 집중분포는 경남이 우세(44.4%)하며, 수상레저사업장은 강원과 경남이 수도권과 부산권에 연접하여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충남은 미발달
- 유람선은 창원·통영이 49%를 차지하고, 도선은 여수·통영 운항을 중심으로 운항

### 충남의 해양관광(레저)산업분야는 전무한 실정

- 고부가가치산업인 마리나, 레저, 선박산업은 거의 없다시피하며, 제조업과 전문 유통채널은 천안에서 담당
  - 수도권, 부산, 제주, 경남을 중심으로 시장 형성됨

관광레저산업별 충남 현황 검토(새만금개발청, 2016)

구분		주요내용		충남 현황	
구성 요소별	기반시설		마리나, 방파제, 항만, 어항, 피셔리나, 해양레저 산업단지, 콤플렉스, 리조트, 실버타운 등	△	
	장비생산		보트·요트생산, 각종 의장품·전자장비, 자동화 설비 구축, 설계·디자인, 생산기법 등	×	
	관광서비스		해양관광·이벤트, 운용·AS·교육(면허시험장), 보트쇼·레이싱, 렌탈·차터링·팩토링·금융 등	△	
활동유 형별	수중형	유람선	유람선형	정기 및 장기 유람선 관광목적 유람선(크루즈), 전세계 유람선	×
			수륙양용형	수륙양용버스, 공기 부양정(호버크래프트)	×
		동력수상 스포츠	동력기구형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리 요트 등	×
			동력기구연 결형	패러 세일링, 플라잉보드, 웨이크보드 등	×
		무동력스 포츠	소형선박형	카약, 카누, 딩기요트, 노보트 등	×
				수상스포츠 전문단지	마리나 단지형태의 레저스포츠 단지
	수변 활용형	물놀이 시설		해수욕장, 인공해수욕장	○
		낚시 레저		낚시공원	○
		해변탐방로, 해안도로		데크, 폰툰다리 등의 탐방로	△
		교량, 전망시설		전망대, 관광등대, 교량, 스카이 워크	△
		리조트		숙박 해양레저, 프로그램 결합 단지	△

자료 : 새만금개발청(2016), 새만금 해양레저 선도사업 추진방안. 재구성

## 04 국내외 여건 전망

### 1. 대외적 여건변화

#### 1) 관련 동향

국제적인 해양관광산업은 지속 증가 및 동북아시아지역의 최대 관광시장 부상 전망

- 국제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전망
  - 국제관광객은 2030년 18억명으로 예상
  - 동북아시아 국제관광객 2010년 1억 1천만 명 → 2030년 2억 9천만 명<sup>10)</sup>
- 국내 해양레저 관광수요도 지속적 증가 전망
  - 해안지역 접근성의 지속적인 개선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지속 증가 예상
  -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이용객을 580만명으로 예상(해수욕장, 낚시, 어항방문 제외)하고 있으며, 고품격·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계획을 발표

해양관광산업의 전략산업화 및 해양관광 보편화 예상

- 관광개발전략이 육지의 내륙형 거점 관광 형태에서 해양, 해안, 자연경관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국가들은 해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전략을 수립

10) 해양수산부(2018),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

- 미국의 An Ocean Blueprinting for 21st Century(2004), EU의 Blue Growth(2012), 일본의 해양기본계획(2013) 등이 있음
- 국내도 전통적인 해양관광패턴에서 스포츠와 결합된 형태로 다양화 추세
  - 2017년 해양관광이용실태조사(6대 광역시 대상)에 따르면 해양관광 이용경험은 해수욕장 99%, 도서관 45%, 해양레저 26%, 어촌마을 26%, 해양스포츠 21% 등으로 나타남(부산광역시, 2018)<sup>11)</sup>
  - 해양관광이용실태조사 결과 해수욕장이 월등하지만, 해양레포츠 활동의 인식 및 저변확대로 인하여 스킨스쿠버, 요트, 크루즈, 서핑 등으로 다양화 추세

**미래관광트렌드 중 해양, 스포츠, 크루즈 등 6개가 해양관광과 관련되며, 지속 증가 전망**

- 해양관광산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다에 면한 도시들은 고급레저산업인 크루즈, 마리나를 중심으로 활성화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세계적 관광환경 변화와 해양관광과의 관련성(해양수산부, 2018)**

구분	관광환경변화	기능	핵심키워드	관련성
경제	경제침체 지속 국제관광객 수 지속 증가 소득 증가	현명한 관광 소비 시대	편리형	○
사회	고령화(실버층) 심화 융복합형 관광상품 증가	실버복지관광시대	실버형	
문화	체험관광 증가 스토리텔링 관광 확대 해양공간의 관광가치 제고 해양레포츠 확산	체험기반소비관광확산 해양관광시대 도래	재미체험형 교육학습형	○
기술	소셜 미디어 확산 모바일 기술활용 증가 유비쿼터스 적용 확대 Wi-fi 정보제공 증가 네트워킹 강화 과학기술 발달	온라인 관광 의료관광 증가	최신기술형 융복합형 네트워크형	△
환경	그린 비즈니스 증가 생태관광&책임관광 확산 도보형 증가 저탄소 배출형 관광상품	웰빙관광과 휴양문화	안정형 생태관광형 환경친화형	●

자료 : 부산광역시(2018), 부산 해양관광진흥 실행계획, 재정리

11) 해양수산부(2018),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

## 2) 관광시장 동향

### 전세계 관광시장의 지속 성장 속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30%대를 차지 예상

- 세계 2017년 세계 인바운드 관광객은 1,326백만명이며, 저성장경제에도 불구하고 6.9%의 성장세(세계관광기구(UNWTO), 2017)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30년까지 535백만명으로 세계 관광객의 29.6%로 추계되어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
- 세계해양산업협회(ICOMIA)에 따르면 해양레저산업분야의 국제시장규모는 '06년 470억 달러(약 50조원)에서 '10년 751억 달러(약 80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음(강원도, 2016)<sup>12)</sup>

### 외래관광객은 10%대의 성장추세를 유지

- 한국의 외국 관광객수는 세계 성장률이 5%대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성장폭을 갖음
-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1%씩 성장하는 등 고속 성장하고 있음
  - 2016년 1,724만 명, 2017년 13,335만 명으로 2015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외국 관광객 중 중국이 전체의 50%, 일본이 15%를 차지

### 국내 관광총량은 연평균 10%이상의 성장세이며, 외국인관광객은 감소

- 국내 여행자수는 최근 5년간 1.7%, 참가횟수는 17.9%, 이동총량은 16.3%씩 증가 추세(한국관광공사, 2017)
  - 2017기준 여행자수 40,483천명, 참가횟수 284,966천회, 이동총량 479,673천일<sup>13)</sup>
- 권역별로는 대부분 모두 증가하나. 경상권만 감소
  - 충청권은 63,369천일(2013)에서 79,191천일(2017)로 증가 추세
  - 수도권은 93,456천일(2013)에서 143,757천일(2017)로 급격한 증가 추세

### 국내 해양관광은 해수욕장, 낚시가 56%를 차지하며, 도보, 스킨스쿠버 등의 분야가 증가세 뚜렷

- 당일여행은 수도권, 부산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숙박여행은 강원(33.0%)·충남(16.9%) 등 해수욕장 중심으로 이루어짐

12) 강원도(2016), 강원도 해양레저관광발전 마스터플랜 연구

13) 한국관광공사(2017), 국민여행실태조사

- 국내 해양관광은 국내 관광 전체의 56% 수준으로 해수욕장, 낚시 등이 강세
  - 연안도서지역 방문객 9백만명, 낚시어선이용객수 : 4,149천명
  - 해수욕장 이용객 1억 8백만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수 : 24,911대
  - 조종면허 취득자수 : 205,262명

**크루즈 산업은 지속성장이 전망되며 이와 관련된 마리나 등 전후방산업도 성장 전망**

- 국내 크루즈 산업은 기항지 기준 관광객이 전년 대비 3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1조원 이상의 소비지출을 예상<sup>14)</sup>
- 이와 동반하여 레저선박수, 요트·보트 조종면허, 레저선박 보유수, 요트·보트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수요도 지속 상승 예상
  - 마리나 항만 개발 수요는 '4년 12,200척, '9년 1,920척으로 추정

**3) 해양산업 동향**

**현재 대비 2030년까지는 해양관광산업이 해양산업 주도할 것으로 전망**

- 세계 해양산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해양자원개발(2010, OECD)
  - 해양자원개발은 34.3%, 해양관광 26%, 항만개발 13%로 예측(해양수산부, 2017)
  -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3.9%이고, 해양관광이 26.4%를 차지
- 2030년에는 해양관광(25%), 해양자원개발(21%)로 해양관광이 높은 비중 전망
  - 산업별로는 해상풍력, 양식, 수산·가공 등의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OECD), 해양바이오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유럽위원회)(해양수산부, 2017)<sup>15)</sup>

**세계 해양산업 부문별 전망(해양수산부, 2017)**

(단위 : %)

구분	부가가치 증가	부가가치 변화	고용변화
평균	3.45	197	130
양식	5.69	303	152
어업	4.10	223	94
수산가공	6.26	337	206
해양관광	3.51	199	122
해양원유 및 가스	1.17	126	126
해상풍력	24.52	8,037	1,257
항만	4.58	245	245
신조 및 수리조성	2.93	178	124
해양장비	2.93	178	124
해운	1.80	143	130

자료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OECD(2016), The Ocean Economy in 2030

14) 제주 크루즈 협회(2016)

15)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 해양레저관광분야 중 높은 파급효과를 보이는 레저보트산업은 미국이 주도

- 세계해양산업협회(ICOMIA)와 더글러스 웨스터우드(Douglas Westwood) 에 따르면 레저보트 제작업체 수, 부품 제작업체 수, 관련 산업 종사자 수, 마리나항 수 등 전 부문에서 미국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음(강원도,
  - 보트 생산업체는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수, 영국, 독일, 프랑스 순임

## 우리나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 해양관광·레저부문은 지속성장 예상

- 우리나라 해양산업 전반은 부가가치율 및 경쟁력이 낮음
  - 해양산업의 GDP대비 비중은 선진국과 유사(3.4%)하나 부가가치율(26.1%)이 낮은 수준(주요 선진국 부가가치율 37%)
- 조선, 항만물류, 해운 등의 전통 해양산업분야는 중국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해양레저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가속화되어 기술경쟁력이 취약
- 세계 저성장기조에 따라 해양산업 전반의 여건은 안 좋지만,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관광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10%이상 성장률 기록 예상
- 그러나, 해양관련 기업이 업체별 종사자수가 10명 이하로 영세하여 독자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
  - 해양관련기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11명이며, 해양레저관광업관련 업체별 종사자수는 4명으로 매우 취약

국내 업종별 해양기업의 업체수, 종사자수(해양수산부, 2017)

(단위 : 개, %)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별 종사자수
	수	비중	수	비중	
합계	22,968	100.0	247,694	100.0	11
수산업	5,108	22.2	49,434	20.0	10
조선업	2,651	11.5	59,147	23.9	22
해양건설업	4,958	2.2	4,827	1.9	10
해양기기장비제조업	3,200	13.9	39,448	15.9	12
해양레저관광업	4,478	19.5	15,867	6.4	4
해양수산공공활동	638	2.8	8,418	3.4	13
해양수산서비스업	1,070	4.7	17,748	7.2	17
해양자원개발업	73	0.3	1,092	0.4	15
해양환경업	160	0.7	2,388	1.0	15
해양항만물류업	5,095	22.2	49,327	19.9	10

자료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 2. 국가 정책 동향(해양수산부, 2014, 2017,2018 이하 재정리<sup>16)</sup>)

### 1) 방향

####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부합하는 개발 및 활용

- 기 개발된 노후·방치시설의 경우 기능 및 디자인 변경 등을 통한 ‘재생’을 우선 추진
- 해양관광시설의 신규 조성 시 유희부지 우선 활용, 친환경 기술 적용,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등 원칙에 따라 추진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구분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 중앙정부는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분야 육성을 위한 R&D 지원 및 선도사업의 선정·추진, 국정과제 관련 사업 추진
  -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별 발전전략 수립 및 관할 해양관광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해양관광자원의 적극적 관리체계 구축

- 해양관광자원 현황, 관리·이용실태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 관리 기반 마련
  - 해양관광자원의 개발·활용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인식 전환 및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발굴을 위해 민·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례회의, 협의회의 개최 등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유지
- 해양레저·관광활동의 활성화 촉진
  - 사계절 중단없는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시기, 홍보수단, 연계 콘텐츠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신문·잡지, 국가전광판 등을 통한 상시 홍보뿐만 아니라 다큐·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등 홍보 방법의 다각화 추진
- 산업화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 마련
  - 해양레저·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산업화 단계에 따른 전략 수립
  - 권역별로 차별화된 관광정책 추진

16)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18),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

## 2) 주요 방안

###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및 대중화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확대
  - 수준별·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충을 통해 해양레저문화 확산 도모
  - 요트세일링, 보트조종술 및 레저기구 제작 등 심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조종면허 취득과 연계 추진
  - 카약·카누·보트 뿐만 아니라 스킨스쿠버, 서핑, 웨이크 보드 등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 추가 운영
- 해양스포츠 관련 위상제고를 위한 각종 대회 유치 및 동호회 육성
  -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국민적 인지도 제고 및 사업효과 증진을 통해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로서의 위상 제고
  - 시·도별 동호인 대회 지원을 통해 대회참가를 독려하고 경기력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범 조성에 활용
  - 국제요트대회, 파워보트 대회, 카누·카약대회, 전국 Open Water Swimming 대회 등 대회 개최를 통한 국민 관심 제고
- 레저 낚시의 대중화 기반 조성
  -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낚시공간을 조성하여 자원감소·환경오염·안전사고 방지
  - 선진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터·어선업자 대상 교육 강화 및 자율적 감독 체제 구축
  - 해중레저의 대중화 기반 조성
  - 해중레저활동 활성화 및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해중레저 활성화대책」 수립·운영
  - 스킨스쿠버, 씨위킹, 스노쿨링 등 해중레저 체험이벤트를 개최하고 해중전망탑 조성 등\*을 통해 해중레저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 마리나산업 고도화 및 한국형 레저선박 개발 지원, 콘텐츠 강화

- 마리나산업 육성 기반 마련
  - 마리나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양질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실시
  - 호주, 미국 등 해외 마리나 유급인턴 파견 확대하여 선진 마리나 운영노하우를 습득하고 국내 보급 추진
  - 요트·보트 조종면허 발급기준, 상업용 레저선박의 최저승무기준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서비스업 활성화 도모
- 한국형 레저선박 개발 지원
  - 매년 생산판매된 국산 레저선박을 대상으로 부문별 ‘올해의 레저선박상(賞)’을 시상함으로써 제조업체 격려 및 국산제품 홍보에 활용
  - 선박 수출시 필요한 제조기업 식별코드(MIC) 발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검사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통해 MIC 발급 추진

- 레저선박 제조업체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출보증제도 도입
- 요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이용 편의 강화
  - 해양경관, 먹거리, 축제, 유적지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로 마리나간 이동 요트관광 활성화 유도
  - 마리나항만 등 레저선박 계류시설 확충
  - 마리나 편의시설 분양 및 회원제 도입을 통해 개발 투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리조트 등 다양한 형태의 마리나 개발 도모
  - 거점형 마리나 외에도 주요 해양관광지 및 어항내 소규모 계류시설 설치로 요트이용객 편의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

### 크루즈 국내 기항 복합개발 및 국민 저변 확대

- 크루즈 국내 기항 유치기반 마련
  - 2014~2015년 부산·인천·제주에 10만톤급 이상 크루즈 전용부두 4개 선석 건설 등 '20년까지 전국 9개 항만에 총 12선석 확보
  - CIQ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안내센터, 대중교통 정류장 등 편의시설 지속 확대
  - 관광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기항 매력도 제고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지역적 특색과 한국적 요소를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형별 맞춤형 관광상품 제공
  - 크루즈 터미널 인근에 쇼핑·위락·관광 등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선용품·선박수리 서비스 등 관련 산업 육성
  - 항만별 수요분석을 통해 비즈니스형·가족형·고급형 등 특화된 개발모델 설정
-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마케팅 확대
  - 주요 선사·관계자 대상 투자·관광 설명회 및 팸투어·간담회 개최 등 타겟 마케팅을 강화하고 대규모·정기 기항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한-중-일 크루즈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선상 카지노 도입 등 국적 크루즈선사 운영상 애로사항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2023년까지 국적 크루즈선 10척 확보
- 국민 크루즈 여행 대중화
  - 크루즈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친근감 형성을 위한 다각적 홍보 실시
  - 경관이 우수한 해안에 대한 연안 크루즈 운항 코스를 개발·확대하는 등 연안 크루즈 활성화

## 해수욕장 사계절 이용 촉진

- 해수욕장 매력도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및 콘텐츠 확충하여 복합레저공간으로 조성
  - 수상레저기구 운용구역과 물놀이 구역을 구분하고 레저선박 계류장, 진출입로 등 레저활동 지원시설 확충
  - 해수욕장을 도시 위락형-전원 휴양형으로 유형화하고 이용수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 선정·시행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강화
  -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 상황실 운영, 통신장비 확충 등 추진
  - 수질검사·백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 및 장애인 등 관광취약 집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 해수욕장 관리·운영 실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운영
  - 해수욕장 웹 사이트개선 및 모바일 앱 개발 등 다각적 홍보 지원
  - 해수욕장 정보사이트의 콘텐츠 현행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해양관광포털(바다여행) 등 유관 사이트와 연계
  - 날씨, 이안류 지수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해수욕장과 연계한 여행경로 추천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해수욕장 이용 및 주변 맛집·숙박 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등 다각적 홍보 실시
  - 해수욕장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해수욕장에 대해 기념조형물 설치 등 집중적 홍보 추진

## 연안과의 연계 발전을 위한 해양휴양공간 조성·정비

-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 연안 유휴지를 개발하여 부담 없이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저가형 숙박시설 등 친서민형 기반시설 조성
  - 2018년까지 7개 지구의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선도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대상사업의 단계적 확대 추진(2023년까지 총 14개소)
- 해양레저·관광 지역 특화 시설사업 추진
  - 해양레저·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방안 수립('14)을 통해 시설별·권역별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신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 해양자원 활용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하여 해양레저복합공간, 마리나, 친수공원, 낚시공원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해양관광시설 조성사업 지속 지원(매년 20~30개소 지원)
- 친수연안 조성 사업 추진
  - 기후변화 등 연안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연안 수요 충족을 위한 신 개

념의 연안정비사업 추진

- 연안의 질적 환경 개선을 위해 단순 침식방지에서 친수연안 공간 조성을 동시에 실현 할 수 있는 다목적 연안정비사업으로 전환
-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친수연안정비, 해안림 조성 등 보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 해안 도보여행 활성화 기반 조성
  - 해안누리길의 편의시설과 안내판 설치 등 시설개선 및 팸투어 실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홍보를 통한 활성화 지속 추진
  - 해안누리길에 대한 전반적 재평가를 통해 노선별로 개발·활용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지원전략 수립

##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 해양보호구역과 배후 마을을 연계한 ‘해양생태관광지구’ 조성
  - 해양보호구역내 생태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진입로, 탐조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방문객 센터 등 편의·지원시설 정비
  - 해양보호구역 배후 마을을 ‘(가칭)해양생태마을’로 조성하여 생태 학습 및 저탄소 생활 체험공간으로 활용
  - 갯벌생태안내인 육성 및 인증제도 활용을 통해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 기반 마련
  - 갯벌생태안내인 교육인증기관 재인증 및 신규기관 지정
-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해양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 해양보호구역내 해양생물·생태계·경관구역 등 3개 세부 구역별로 특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16)
  - 해양보호구역 방문객 센터의 체험학습 콘텐츠 개발 지원 및 센터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
- 전국 해양보호구역을 연계한 국민대장정 프로그램 개발
  - 국민대장정 힐링캠프 프로그램 : 국토대장정 프로그램과 접목하고, 지역기반 협동조합 연계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15.4 개관)을 통해 해양생물의 다양성 및 자원활용성에 대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해양생태관광 정보서비스 강화
  -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D/B구축 및 Web-GIS(지리정보시스템) 형태 서비스 추진
  -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를 위해 사진전 등을 개최하고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전국 권역별 해양관광 진흥 방향

권역	추진전략
수도권 (인천, 경기)	도시위락형 국제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 ◦ 국제크루즈선 유치를 통한 해양도시관광 활성화 ◦ 도시근교 마리나 확충으로 요트·보트 등 해양레저 확산 ◦ 관광문화힐링이 어우러진 복합휴양공간 조성
서해안권 (충남, 전북)	해양문화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 창출 ◦ 보전과 체험이 조화로운 해양생태관광벨트 조성 ◦ 해양경관 콘텐츠와 해양생물자원관의 연계 발전 ◦ 해양테마마을, 연안축제 등 지역특화형 관광 개발
다도해권 (전남)	섬·연안·어촌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화 ◦ 음식, 체험, 문화가 있는 어촌관광 거점으로 육성 ◦ 다도해 연계 크루즈·요트 등 섬관광 활성화 ◦ 박물관 등 해양문화콘텐츠와 레저관광의 복합 상품개발
한려수도권 (경남)	활력이 넘치는 해양레저스포츠거점 구축 ◦ 마리나 및 레포츠센터 확충을 통해 해양스포츠교육 메카로 육성 ◦ 해양문화와 수산물 먹거리를 연계한 해양축제 활성화 ◦ 해양경관과 섬을 연계한 휴양형 레저콘텐츠 적극 개발
동남권 (부산, 울산)	친수문화를 선도하는 국제 해양엔터테인먼트 허브화 ◦ 마리나·크루즈·해양MICE산업 네트워크 형성 ◦ 항만재개발과 미항프로젝트로 국제적 해양친수공간 조성 ◦ 해수욕장과 문화콘텐츠의 연계로 사계절 해양관광모델 구현
동해안권 (강원, 경북)	여유와 휴양이 있는 해양힐링거점화 ◦ 해양헬스케어 등 체류형 관광·휴양시설 조성 ◦ 해중레저·해수욕장·해안누리길 연계 콘텐츠 개발 ◦ 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 및 익스트림 해양스포츠 활성화
제주권 (제주)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해양관광명소로 육성 ◦ 크루즈·마리나 기반 동아시아 해상관광벨트 구축 ◦ 국제관광지에 맞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 문화·휴양·레저스포츠를 융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확충

출처: 해양수산부. (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 3. 타 지자체 정책 동향

#### 1) 광역지자체별 주요 정책 및 사업(충청남도, 2015 재정리<sup>17)</sup>)

**경기도 : 수도권 대응 해양레포츠선진도시 - 규모화, 통합화, 거점화**

- 마리나, 낚시터를 조성하고, 이를 거점화, 규모화
  - 경기만 마리나항건설, 낚시터 환경개선,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 경기 마리나·요트 통합관리사업, 연안크루즈 운영, 해양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피싱요트개발
- 관광수용태세 및 콘텐츠 개발
  - 대규모 해상낚시공원 설치, 경기해상호텔 건립, 수중생태관광 해저터널 조성, 비키니 island/beach 개발, 해저선박침적군락공원 개발

**전라북도 : 새만금 중심의 인프라 조성 및 클러스터 사업 추진 예정**

- 전북은 해양문화시설이 전무하다는 판단하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선도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
  - 해양관광자원의 발굴 및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클러스터 사업을 도입하여 추진 예정

**전라남도 : 동북아를 대상으로 관광, 기술, 산업을 한 방향으로 추진**

- 해양관광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육성
  - 서남해안광관레저도시는 동북아 해양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엑스포타운은 남해안 해양관광, 해양환경산업 중심으로 개편
  - 전남을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권역을 구분하고, 각 권역별 생물, 조선 및 항공, 정밀화학, 신소재 물류, 해양, 전자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
- 한중일 공동 상품개발 등을 위한 콘텐츠 및 상호 협력
  - 도시, 기반 구축과 더불어 한중일 공동 관광상품 개발 추진

---

17)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경상북도 : 해양자원 산업화, 고부가가치 해양레포츠 육성 및 콘텐츠화

- 해양을 활용한 산업화로 신성장엔진 구축 및 신산업 육성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다목적 이용기술, 실용화 기반 확충, 해수 냉난방시범단지 조성, 해수온도차 발전 플랜트 개발, 온배수활용 농수산물 생산단지 조성,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용화 시범단지 조성, 해양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실증기반 조성사업
- 포항, 영덕, 울진 중심의 복합단지화 및 해양휴양공간 벨트화
  - 울진, 영덕, 포항을 중심으로 해양힐링벨트 조성
  - 동해안 주상절리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 공간 조성외에 각 공간을 연결하기 위한 동해안 ‘바다벗길’ 사업 등을 추진
-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해양레포츠, 문화콘텐츠 육성
  -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교육기반 조성, 국제 해양레포츠 이벤트 육성
  - 환동해 연안·국제 크루즈 거점화, 연안크루즈 관광기반 조성사업, 환동해 국제크루즈 거점구축사업
  - 환동해 국제관광 협력체계 구축
  - 동해안 해양문화원형 발굴 및 활용사업, 동해안 해양관광축제 육성사업, 국립 환동해 해양민속박물관 조성사업, 해양테마마을 리디자인, 어촌 테마마을 및 경관조성사업, 산해진미 체험 프로젝트

## 경상남도 : 섬기반 남해안 레포츠 벨트 육성 및 자원 융복합화, 광역화

- 해양(섬)관광기반 구축
  - 남해안 해양레포츠 벨트 조성, 어촌체험마을 조성, 테마섬 조성 및 미래형 친환경 해양교통수단 도입
  - 시군간, 시도간 관광정책 연계·광역화(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국제적 관광브랜드 육성 및 관광수용 태세 확립
- 관광교통체계 광역화
  - 크루즈터미널과 기항지 인프라 확충
  - 남해안연안크루즈 활성화 방안 수립 및 동북아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 해양자원 활용 스마트화
  - 해양생명공학 연구기관 설립, 수산업 분야 생명공학기술 적용, 해양생태계 보호체계 구축
  - 해양레저 특구 조성, 마리나항만 및 크루즈관광 종합적 육성

## 부산 : 식품, 인력, 수산, 조선, 클러스터, 교류, 수출 등 전방위적 육성

- 해양생명식품산업화를 위한 수산업 육성
  - 해양생명식품과학 오픈이노베이션센터 설립, 수산식품산업 산학관 연구지원센터 설립·운영
  - 해양바이오 신소재 실용화 사업 추진, 미역·다시마를 활용한 전략식품산업 육성
  - 국제 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수산물유통시설건립

- 안전·안심 수산식품산업화 기반시설 확충, 수산식품 냉동냉장업 고도화 방안 마련,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동남권 수산물 공급거점 단지 조성, 국내외 수산식품시장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부산 대표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유치, 글로벌 수산정보 시스템 구축, 기능성 수산가공품 국제지원사업
- 해외수산교류 협력사업 확대
- 낚시, 선박(조선) 등 공급체인별 종합 육성 및 해양레저장비, 제품 개발 육성
  - 대형어류 선상낚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연안지역 레포츠 피싱 활성화
  - 고급 엔지니어 및 PM 인력 양성 사업
  - Green Ship Technology Guideline 연구사업, 선박전자산업진흥센터 설립 사업, 기술개발로드맵 작성 및 기술개발 추진 TF, 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사업, 해양레저장비산업 클러스터 구축, 해양레저장비산업 인력 양성 사업,
  - 조선산업 미니클러스터 구축 : 수리조선단지 조성
- 마리나, 요트, 해양크루즈 등 고급 관광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수영만요트경기장, 북항마리나, 백운포마리나, 다대마리나
  - 대변항 레저보트, 친성항 레저보트
  - 강서 조정·카누경기장, 낙동강 수상스포츠타운 조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운영
  - 다각적인 해양크루즈 사업 : 맞춤형 Luxury 크루즈(중소 규모), 중대형 연안크루즈 도입
- 해양과학기술 및 R&D 기반 확충
  - 한국해양플랜트기술원 설립, 해양과학기술 연합대학원 설립, 해양과학기술협의회 운영, 해양과학기술 R&D 클러스터 조성
  -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 해양신기술 투자펀드 조성
  -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 기반구축
  - 해양플랜트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육성기술 개발
  - 차세대 해상운송기기 실용화기술 개발
  - 해수 농축수 용존광물추출기술 개발
  - 해중장비 고도화 기술 개발, 해양생명공학 기술 개발
  -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 로봇형 심해가두리 양식기술 개발, 하구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 해수욕장 및 해안선 침식 방지기술 개발
- 산업화 역량 강화
  - 해양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연구소기업 육성
  - 해양과학기술 박람회 개최
-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 부산하버랜드 사업

- 영도구 동삼동 마린 테크노 폴리스 사업
- 동삼동 R&D 클러스터 구축
- 영도남항 일원의 마린랜드 사업
- 역사와 해양문화 연계
  - 부산항 역사박물관 건립, 세계해양박람회 개최
- 해양문화공간의 재창조
  - 해양문화 체험코스 개발
  - 전쟁역사 체험의 길코스
  - 부산의 해양문화자원 체험코스
  - 봉래동 창고지역의 문화창조 공간화
  - 남항 및 봉래동 지역의 도시재창조
- 해양 지식·창조산업의 육성
  - 해양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
  - 해양 디지털.미디어 산업육성
  - 해양 건축.디자인 산업육성
- 해양자원의 전략적 활용
  - 북극해 연구.자원개발 체제 구축

## 4. 요약

###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주도권 경쟁 심화 예상

- 해양관광 거점, 마리나·크루즈 시설의 조성 및 차별화전략에 초점
  - (부산) 크루즈마리나 시설 메카로서의 입지 강화
  - (경북) 관광거점 중심의 해양관광지 명소화 사업 추진
  - (전남) 동북아 해양문화허브 조성 추진
  - (경기) 거점형 해양관광 시설 조성

###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로 추진방향 전환

- 관광자원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요소 동시 추진
  -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조성
  - (경북) 해안마을 브랜드화를 통한 해양문화 차별화
  - (해저 선박침적 군락공원 개발) 경기도 스쿠버 다이버의 안전을 위하여 폐어선 및 선박을 바다속에 투하·바다속 환경을 조성하는 수중 선박침적 군락공원 조성

###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체험 시설 증가 및 지자체간 경쟁 가속화

- 수도권 스킨스쿠버 유입을 위한 수중 촬영대회, 수중이벤트 개최
  - (체계적인 해양관광기반 구축) 전남 해양레저·관광 거점시설 확충,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해양마리나시설 확충, 해상 낚시공원 조성, 남해안 조개타운 조성, 해양주제공원 조성, 마린빌리지(수상마을) 조성 등
  - (크루즈 관광 종합적 육성) 경남 국내·외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부두와 터미널 조성, 크루즈 업무 전담부서 운영 등 크루즈 관광의 종합적 육성 추진, 크루즈 전용부두 및 복합 관광시설 조성
- (해양관광 거점의 차별화 추진) 생태·체험·힐링 등 지속가능한 체험형 상품 개발 목표
  - (전남) 휴양체험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 (경북) 해양 생태·힐링 중심의 관광거점 개발
-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핑 등 체험 문화의 확산<sup>18)</sup>
  - 양양<sup>19)</sup>을 중심으로 젊은층의 니즈에 부응하는 서핑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강원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원정서핑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
  - 최근에는 죽도 해변에서 2019년 10월에 서핑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11개 종목을 개최하였으며, 양양군은 특산품 장터, 폴리마켓 등도 함께 추진

18) 국내에는 부산 송정, 제주 중문 등 여러곳이 서핑 적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강원 양양은 물치해변, 동호해변, 서피비치, 기사문해변, 죽도해변, 광진해변 등이 널리 알려져 있음. 최근 민간에서는 서울-양양간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19) 전국 서핑숍이 전국에 약 122개가 있으며, 이중 절반인 60개가 양양에 입지

## 05 충남 대응 방안

### 1. 기본 방향

#### 충남의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및 산업화 도모

- 충남은 잠재자원이 풍부하지만, 지자체간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속에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관광산업화 노력 경주 필요
-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 강점을 갖는 해수욕장, 낚시업에 대해서는 공간적, 산업적인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

#### 입지적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산포된 관광객의 집객을 강화하는 거점 기능 확보

-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시장인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충남은 하절기 전통적 해양레저 활동에 그치는 상태
- 충남은 작지만 매력적인 자원이 서해안 전역에 산포되어 있어서 도시기반 및 정주인구가 빈약하여 배후시장 규모가 약하다는 한계로 인하여 레저인구 또는 특수목적형의 타게팅 전략이 필요
- 우선, 기존 관광지의 해양레저 관련 콘텐츠 확보로 관광객 집객을 확대하고, 크루즈, 마리나, 요트 등의 규모성이 있는 고급 레저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연관산업을 점진적 확보를 고려

## 해양레저 산업육성을 위해 단계별 공간적·산업적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마련 및 추진

-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인 집객형 시설, 활동형의 액티비티시설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경쟁력이 있는 기존 관광지를 중심으로 규모성이 있는 단지 조성 및 거점화를 유도
- 각종 부대시설, 지원시설, 해양레저 관련산업 및 R&D시설등 연계기능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해양레저 클러스터를 조성

## 시장 규모·세부시장에 따른 적절한 타겟팅 및 도입기능 구상

- 현재의 해양레저관광 배후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레저인구, 특수목적형 수요층을 유인할 수
- 있는 타겟팅과 도입 시설·프로그램의 구상 필요
- 향후 지속 증가할 분야 중 하나인 스포츠 관련하여 해양레저 교육, 스포츠 경기 유치,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의 명확한 테마형 컨셉과 국내 수요층에 대한 타겟팅 필요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공공의 기반 마련 우선 추진

- 해양레저산업은 관광분야 등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저성장시대에는 민간은 수익성에 매우 민감함
- 해양레저활동이 대부분 서해안의 해양, 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수도권 및 내륙지역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대전, 세종, 경북의 시장성을 고려한 동서간 교통 인프라 확충은 절실함
- 한편,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용이한 공공성격의 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민간자본의 투자 여건을 성숙시키는 것도 필요함

## 2. 접근 방법

### 해양레저 관련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산업적 접근 및 충남에 적합한 테마 선정

- 해양레저산업은 관광부문, 문화부문, 스포츠 부문 활동과 직간접으로 연관되며, 1차-2차-3차 파급 요인에 대한 조사, 선별 및 정리가 요구되고, 각 파급요인에 대해서는 연쇄적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각각의 산업군별 시설들은 단일 목적의 시설과 연관기능간의 융합된 시설 들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가능한 복합화된 기능을 수행토록 조성
- 다양한 산업군 중 타겟팅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충남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약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충남만의 테마 설정 필요

### 충남이 보유하여 강점을 보유한 해양관광 기능은 규모화·거점화 및 전후방 서비스 산업군과의 연계, 연접 관광지간의 연계성을 제고

- 충남의 강점을 보이는 해수욕, 해안·수변 산책에 대해서는 규모화하거나 주변 관광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여 규모의 경제, 연계의 경제를 창출
- 2차 파급을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후방 서비스산업군과의 연계가 절실함
  - 숙박시설(콘도, 리조트), 오토캠핑장, 스포츠센터, 레스토랑, 쇼핑센터 및 해양생태체험마을 등을 들 수 있음

### 해양문화산업은 프로그램의 다양화, 주기적인 행사·이벤트 개최 등을 보완하고, 역사문화, 레포츠에 대한 콘텐츠화·테마화가 요구되며, 신규 해양레포츠 대회를 적극 개최

- 충남의 축제는 향토 자원·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유희성·일회성·관람형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있음
- 1차 파급하기 위해서는 해양축제의 다양화와 더불어 해양 역사문화, 해양문화자원, 해양 레포츠에 대한 콘텐츠 발굴 및 테마화가 요구됨
  - 해양역사문화 콘텐츠화를 위해서는 해양문화 포럼 등을 시행하고, 이를 해양체험교육센터, 관광안내센터와 연계하여 2차 파급효과를 제고

해양스포츠는 해양레포츠센터의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거점화하고 생산, 수리, 교육 등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복합단지로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

- 자연여건으로 인하여 충남에서 취약한 부분인 해양스포츠 분야는 요트 보트, 스킨 스쿠버, 카누·카약 등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적지를 조사·발굴이 필요함
-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각 부처의 국가추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이 사업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실현성 제고하고, 향후 투자를 위한 촉진제로 역할 도모
- 또한, 공공에서 추진하는 방법중의 하나인 마케팅, 홍보사업은 수익성과 더불어 정체성을 나타내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시행

해양레저기능별 주요산업군 및 시설

기능	주요시설	전후방 산업군 및 시설 파급력		
		단기 ← 시설 및 P/G	→ 장기 전후방 제조업	→ 장기 전후방 관광산업군
해양관광	해수욕장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크루즈항만 해중공원	클럽하우스 스포츠센터 레스토랑 의료시설	해양자원개발 R&D
	해안 산책			해양에너지 R&D
	크루즈			
	해양생물관람			
해양문화	해양축제	해양축제 해양문화포럼 국제스포츠	쇼핑센터 해양체험교육 관광안내센터 해양생태체험마을	해양레저 교육단지
	해양 역사문화			해양관광 복합문화단지
	해양 문화자원			
	해양레포츠			
해양 스포츠	요트·보트	마리나 해양레포츠센터	전문인력양성 숙박시설(콘도,리조트) 오토캠핑장 장비보관·수리시설	해양레저선박 생산기업
	카누·카약			해양레저장비 수립 및 장비업체
	씨핑			
	스킨스쿠버			

주) 주요 산업군 및 시설은 필자의 판단에 의한 기능, 시설임

### 3. 충남의 주요 육성방안

#### 1) 기존 관광 거점·시설의 연계·융복합화(관광산업)

항만, 어항을 가족형 레저공간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결합된 친수공간으로 정비

- 항만, 어항은 일련의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으로서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관문역할을 수행함
- 다양한 경제활동 외에 활용하기 위한 재미있는 해양레저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예) 해상 부유식 이색 산책로, 바다 정원, 수상 해양공원 등
- 해수면과 내수면을 모두 갖춘 특성을 하천 하구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마리나시설, 고급 휴양주택단지,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며, 독특한 경관 조성과 더불어 야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관조명, 전망대를 조성
  - 예) 대호호, 간월호, 부남호, 홍보지구, 부사지구 등
- 해수욕장의 경우 해변을 활용한 승마 및 레포츠 연계한 복합화
  - 충남의 경우 해변을 비롯한 관광시설이 넓은 면적에 산포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단거리 승마보다는 장거리 승마가 유리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승마장을 도입하고, 수변을 따르는 외승로를 조성하여 해변승마로 특화 검토 추진
  - 승마는 유희성외에 신체적인 재활치료기능이 있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운영에 있어서 차별화를 도모
  - 특히, 해양레저에 국한하지 않고, 해양과 내륙을 아울러서 장소적 장애를 받지 않도록 모든 레포츠 활동이 가능토록 조성
- 서산, 당진, 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좌대낚시의 경우 공공의 해상낚시 체험을 홍보할 수 있는 체험 시설 도입 운영
  - 가족 단위의 방문객 참여가 원활한 손쉬운 낚시 경험토록 제공하고, 주변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휴양 시설을 도입함
  - 더 나아가서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가족형 숙박시설, 낚시관련 용품 대여소, 편의·휴게 시설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

해양문화자원 콘텐츠화·테마화 및 작은 거점 육성 및 연계

- 어촌마을 사업의 본격화시 재현 공간, 문화 시설 보강하여 콘텐츠 강화
  -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기능이 결합된 어촌 관련 테마공원을 조성하되, 충남의 독특한 어촌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색 체험시설을 함께 조성

- 풍부한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결합된 형태로 추진하고, 전시 기법 또한 단순 관람위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전시기법 전개
- 관광객 대상을 가족형뿐만 아니라 학생, 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 대응한 교육수요 창출
- 지루함에서 벗어난 프로그램의 강화 및 반일 생활권을 고려한 당일 프로그램 강화
  - 교육프로그램이 갖는 지루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연령에 맞게 기획하고 당일 프로그램을 기획
  - 문화체험코스는 타겟을 명확히 하되,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키즈데이와 같은 작은 이벤트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흥미를 지속 유발
- 하절기 관광패턴을 극복하기 위한 계절별 프로그램 적극 육성
  - 하절기에 국한되는 특성을 탈피하여 사계절형 관광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트레킹, 축제, 체험등의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이 필요
  - 인근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한 장터 체험, 프리마켓, 벼룩시장과 같은 비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지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 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축제·이벤트 지속 개최하여 관광수요 창출

- 대형 이벤트의 개최는 충남도의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공공에서 접근하기 원활한 영역임
- 국가 시책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각종 이벤트 지속 개최
  -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 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동북해 해양레저특구 조성(여수박람회 시설 활용)하고 있고, 시장 육성을 위해 체험교실 운영,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국제보트쇼 개최, 해외보트쇼 참가를 지원 중이므로 이와 관련된 충남의 해양레포츠 산업을 발굴하여 육성
- 해양스포츠 축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보령의 모드축제는 총방문객의 편차가 2018년에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여서 행사의 다양화가 요구됨
- 국내 해양스포츠 축제는 크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레저스포츠 페스티벌로 크게 나뉘며, 그 종목에 따라 인원, 기간, 주관이 다르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 특히, 충북 충주의 경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충청북도 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이 주관한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관심과 의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전국해양스포츠대전(2018, 속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식 종목 : 요트, 핀수영, 카누, 트라이 애슬론
    - 번외 종목 :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카이트보트
    - 해상체험 - 고무보트, 씨카약,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해수풀, 해동이슬라이딩, 수상 징검다리, 맨몸슬라이딩, 돌고래슬라이딩, 하이슬라이딩, 하이다이빙 체험, 에어블라프, 물대포
    - 육상체험-패션타투, 공예 활동, 디지털사진인화

## 해양레저스포츠 인구변화에 대한 동호회 육성 지원

- 초창기 해양레저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초기 관심 촉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은 레저스포츠 동호회라고 볼 수 있음
-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동호인 클럽 인구는 낚시, 수영,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카누, 윈드서핑, 요트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낚시와 수영임
  - 낚시 인구는 42,636명, 수영 112,564명, 수상스키 6,846명, 스킨스쿠버 9,532명, 카누 5,464명, 윈드서핑 10,407명, 요트 2,216명임(문화체육관광부(2016), 스포츠백서)

## 2) 신규 관광거점 육성(해양레저스포츠산업)

###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특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해양레저스포츠 관련하여서는 6개가 지정되어 있음
  - 2017년 기준 총 194개 특구 중 관광, 문화, 스포츠 관련 특구는 52개,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특구는 6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충남은 없음
  -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 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 거제 해양휴양 특구로 나타났음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지역 내 혁신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부족한 혁신자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중소벤처기업부, 2017)<sup>20)</sup>
- 충남에서 특구로 지정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행정(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민간특화사업자, 민간기업, 경제단체 등),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충남 관광레저산업 육성 협의회」 설치 추진이 필요함
  -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지사, 시장·군수의 의지와 관심과 더불어 함께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관련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순환보직제에서 탈피한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함
  - 또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므로 반드시 발생하는 위험관리를 위해서 이해관계 조정, 협의 및 자문 등의 기능도 함께 수행되어야 함

20) 중소벤처기업부(2017),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계방안 연구

- ※ 최근 전남·전북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내의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회원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협의체를 구성·운영코자 하고 있음

### 기존 앵커시설의 수용 집객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 해양생물자원관(서천)의 기능 확대 및 지자체와의 연계발전 도모
  - 현재 전국의 해양관련 교육시설은 부산 해양국립박물관, 서천 해양생물자원관, 울진 해양과학교육관이 대표적임
  - 서천군의 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된 종합안내 기능, 학습체험기능과 더불어 각종 콘텐츠 체험을 위한 체험형 공원 등의 기능 확대 필요
- 학술적 가치 제고·전달 외에 재미와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운영
  -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포섭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탐방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
  - 서천군의 경우 해양생물자원관 인근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서해안의 해양생태 자원을 학습하고 체험·체류할 수 있는 캠프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

### 원산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헬스케어<sup>21)</sup> 집적화 및 단지화

- 건강,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로 이와 관련된 고급 수요는 지속 증대
  - 국내에서도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자연치유 효과를 활용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음(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 질환치유센터, 산림치유마을 등)
  - 그러나, 해양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치유센터는 전무한 실정으로 새롭게 창출코자 하는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음
  -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휴양과 재활, 관광이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 해양자원을 휴양·치유 등과 관련한 시설 도입의 필요성 제기
    - 충남의 서해안은 기존의 해양자원 활용외에 여행사뿐만 아니라 병원과 연계한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동시에 고려 필요
- 해양자원의 치유·재활 서비스와 연계한 전문 테라피 단지화 및 민자 유치
  - 질병 예방, 건강증진,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유활동을 개발을 위한 해양 치유연구센터 설립, 해양힐링 재활 트레이닝 센터 운영을 고려
  - 원산도 및 규모화된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양힐링산업으로 미래 산업화
  - 치유·휴양기능을 체험하는 연령별 스파·특화 테라피 프로그램(유스힐링, 라이프 힐링, 로하스 웰빙 등의 테라피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운영
  - 장기적으로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

21) 해양헬스케어란 해양성 기후, 지형, 해수, 해초, 해산물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에 활용하고 정신적, 심리적, 사회건강까지 포괄하는 치유의 개념을 뜻함

### 수상 레저, 연수, 교육기능을 갖춘 해양스포츠 복합단지 조성(만리포, 기업도시)

- 젊은층의 니즈에 부응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기능의 적극적 도입 운영
  - 현재, 만리포에서는 서핑객을 위한 안전체험센터, 실내 서핑장을 운영코자 계획 중임
- 젊은 층은 서핑뿐만 아니라 수면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레저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그 변화주기 또한 매우 빠르므로, 해양스포츠 관련된 전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
  - 일례로, 새만금에서는 경정이란 일정 구간의 수면위에서 모터보트를 활용한 해양스포츠경주사업 및 관련대회 유치를 계획 중임
- 수상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초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첨단 해양스포츠 체험단지, 해양스포츠 IT체험관 고려
  - 향후 장기적으로 해양레저체험 특화 지구로의 지정을 고려
  -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와 접목된 각종 문화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풍부한 볼거리와 흥밋거리를 제공
- 서해안 해양 외에 파고, 바람 영향 적은 내수면시설과 연계 협력(태안 기업도시)
  - 레저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젊은층의 특성상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유사한 점을 고려시 태안 기업도시에 조성중인 U.V랜드와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시설의 진입 관문역할수행을 고려
  - 태안기업도시내 내수면의 수질을 고려하되, 파고 및 바람의 영향이 적정 용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대 및 타겟을 포괄할 수 있는 복합 해양레포츠 체험시설로 조성함

### 3) 교육 기능 확대, 기초 R&D, 공공기관 유치 등 장기 지속 추진

#### 요트 경기·체험시설의 프로그램 보완 및 기능 강화(보령 요트경기장,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

- 보령요트경기장과, 한서대 해양스포츠 교육원은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일부 교육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수상안전교육, 해양스포츠 클럽 등과의 연계, 확장이 필요
  - 보령요트경기장 : 호비젤어웨이 요트 체험, 카약 체험, 모터보트 체험
  -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 : 보트, 요트, 바나나보트, 카약, 페달보트, 시뮬레이션, 수영장
- 요트상품 개발시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 충남에는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섬지역에도 다양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이 분포함

- 기존의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지만, 차별화되지 않은 콘텐츠로 인하여 성장동력 확보에 한계
- 학생들의 요트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충남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요트 투어상품을 개발하여 홍보 및 차별화 도모

### 미래수요자 확보를 위한 학생 맞춤형 해양콘텐츠 개발 및 클럽 개설 지원

- 미래수요자 확보를 위한 학생대상 해양콘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적극 운영
  -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의 학령인구들은 실제 해양레저산업의 미래 잠재 수요층임
  - 지역 교육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해양종목 관련 스포츠클럽을 개설하고, 기존의 생존수영 중심에서 해양레저중심 교육으로 전환 노력
- 전국 200여개의 대학교 해양스포츠 학과를 대상으로 실습장소 확보하고 홍보
  - 충남의 각 권역별로 학생수상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교육사업과 병행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 기존의 생존수영에서 벗어난 해양캠프, 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수학여행 등 학교 정책과 연동하여 효과성 제고
- 초중고 해양스포츠 종목에 대한 클럽 개설 및 지원
  - 충남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안전, 시설장비, 전문지도자 등의 지원을 통해 해양스포츠클럽 개설 유도
  - 교육청, 지자체, 협회, 대학교 연계한 연구학교, 공모사업, 지원사업을 추진

###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학과의 인재 양성, 지역내 정착, 학계 연계성 제고를 지속 추진

- 한서대학교 해양레저 배출 인재들을 지역내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및 전략 탐색, 시책 구상 및 추진
  - 한서대학교 한서해양스포츠교육원은 조종면허시험, 보트요트면제교육, 수상구조사, 전문지도자, 실기연수과정, 수상안전교육, 연안안전교육, 낚시어선업, 마린엔진정비, 해양레저체험, 해양스포츠 등의 사업을 추진
- 한서대학교의 학계 연동하기 위하여 기존의 항공레저학과, LINC+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공공기관 유치까지 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ECORYS(2013), Study in support of policy measures for maritime and coastal tourism at EU level
- 강원도(2016), 강원도 해양레저관광발전 마스터플랜 연구
- 김성귀(2007), 해양관광론, 현학사
- 부산광역시(2018), 부산 해양관광진흥 실행계획
- 새만금개발청(2014), 새만금 조선해양 및 해양레저산업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 새만금개발청(2016), 새만금 해양레저 선도사업 추진방안.
- 제주 크루즈 협회(2016)
- 중소벤처기업부(2017),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계방안 연구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물발전계획
- 한국 크루즈관광 통합정보(<http://cruise.visitkorea.or.kr>)
- 한국관광공사(2017), 국민여행실태조사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2001)
- 해양수산부(2014), 마리나 산업육성 대책
-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 해양수산부(2017) 낚시 어선업 운영 현황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 해양수산부(2018),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